

# “반가워요... 넘치는 환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선수단 선수촌 첫 입촌**  
**오늘 이란·캐나다...입국 줄이어**  
**전용 입국심사·KTX 증편 수송**  
**600명 러시아 한 등 모두 사용**  
**종교·언어·대륙별 선수촌 배정**

“시민들이 환대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 본국 베네수엘라에 있는 느낌입니다.” 지구 반 바퀴를 날아온 남미 베네수엘라 선수단이 25일 참가국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 선수촌에 입성했다. 이날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U대회 선수촌에 도착한 베네수엘라 선수단은 입덕호 광주U대회 선수촌장에게 꽃다발을 건네받고 환대해준 광주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베네수엘라 선수단 샌디 로드리게스(44·Sandy Rodriguez) 단장은 “광주와 인천공항에서 분에 넘치는 환대와 사랑을 받았다. 좋은 경기력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수영에 참가하는 호세 알라한드로(22) 선수는 “한국에 처음 왔는데 건물도 거대하고 놀라 무척 놀랐다”며 “일단은 메달을 꼭 따고 싶고 한국의 여러 문화를 즐기고 싶다”며 들뜬 모습을 보였다.

테니스 선수인 안드리아 메켈(여·21·여)은 “입국하기 전에 유튜브 등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건물도 세련됐고 친환경적으로 지어져 놀랐다”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대표 국가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선수단은 대표단을 포함한 배구, 유도, 테니스, 수영 종목 선수 등 55명(선수 41명, 임원 14명)으로 구성됐다. 선수단은 9개 종목에 참가해

유도와 태권도, 펜싱 등에서 메달을, 배구는 8강 진입을 목표로 훈련을 해왔다고 대회 목표를 밝혔다.

이날 선수촌에 입성한 베네수엘라 선수단은 선수촌 등록을 마치고 다음달 3일 개막까지 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앞서 독일과 일본, 아일랜드, 뉴질랜드 선발대가 이미 광주에 도착했으며 25일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선발대도 이날 입국했다.

이날 오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진이다. 다음날인 26일에는 2진과 이란, 아르헨티나, 캐나다 선수단이 입국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회 관련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비자 서비스와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해 이들이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26일부터 광주U대회 특별 수송을 위해 호남고속철도(KTX) 정기열차 외에 3편을 증편, 모두 5편이 선수단 수송에 나서게 된다.

전 세계 선수단의 입국 행렬이 이어지면서 선수촌 내 국가별 선수단 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레바논과 같은 동 건물을 쓰며, 레바논은 단체종목 출전이 없는 만큼 한국과 맞대결이 없다는 점이 이웃사촌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600명이 넘는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는 러시아는 유일하게 아파트 한 동을 모두 사용한다. 선수단 규모가 적은 26개 국가는 한 동을 쓴다. 선수촌 안의 또 다른 작은 지구촌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슬람교나 회교도 등 같은 종교의 국가끼리 배치하거나 영어와 불어 등 같은 언어권 나라를 한곳으로 배정하기도 했다.

대륙별로는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동북아시아, 동유럽, 동남아시아끼리 편성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등 분쟁국가 선수단은 원거리 동에 배치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섬진강 넘어...성화 전담 입성 25일 오전 경상남도 진주시청을 출발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화가 경남 하동과 전남 광양을 잇는 섬진강을 넘어서 전남에 입성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황충리 주재 대책회의·1인 1경기 관람 캠페인·입장권 판매행사 정부·정치권 성공 개최 총력 지원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와 대회 붐 조성을 위해 정치권도 동참하고 나섰다.

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를 열고 7월 3일 개막하는 광주 U대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운영현황 광주 U대회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은 “경기장을 비롯한 대회 시설, 숙소, 교통,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준비를 마쳤고 대회기간에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는 “광주 U대회는 메르스 발생 후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중요한 계기”라면서 “메르스에 철저히 대응해 참가자와 관광객 모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U대회 조직위도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국회의원 회관 1층 로비에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입장권 판매행사를 개최하고, 국회 여야 동료의원들에 경기 관람에 관한 협조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 광주U대회지원단의 공동대표인 박주선 의원은 “광주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한 선수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

해왔음에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해 광주 U대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정부는 적극적 대응으로 북한 선수단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시장위원장 박혜자)도 시민·당원들의 ‘1인 1경기 관람 및 응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나섰다.

광주시당은 이날 “U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17개 시·도당에 광주U대회 관람 안내와 단체 입장권 구매 방법 및 신청서 등을 보내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U대회 기간 중 각 지역위원회별 핵심 당직자 및 당원들의 ‘1인 1경기 관람 및 응원’을 독려함과 동시에 홍보포스터를 비롯한 대회 관련 홍보물 등을 전달하며 광주U대회 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소속 광역·기초의원, 시장 주요 당직자들은 광주U대회 폐막일까지 주요 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1인 1경기 이상 관람하기 운동’ 캠페인 등을 벌일 계획이다.

박혜자 시장위원장은 “광주시당도 미력하나마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ki@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5-901호(2015. 4. 7)  
 준법감시확인필, 커뮤니케이션 제2015-9호(2015. 3. 31)

##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더 늘어나니까” 큰 병에 필요한 C보험금

나이 들수록 더 받고

변액으로 더 키울 수도 있다

나이에 딱 맞는 변액 C보험

### 나이가 들수록 C보험금은 더 받고 변액으로 추가 수익까지 기대하는 삼성생명 나이에 딱 맞는 변액 C보험

지금,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함께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중대 질병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게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b>[튼튼한 C 보장]</b>	펀드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b>[스마트한 변액 운용]</b>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C 보험금도 증가 <b>[연령별로 증가하는 C 보장]</b>
---	---	---

\*이 보험계약은 실직예정형 상품으로 해지환급금 등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변액보험은 운용 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예적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고객의 모든 예금보통 예금상환금의 합계한도(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연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전환이 가능하며, 연금전환 시 기존보험의 보장은 종료 또는 감액 됩니다. \*중도인출은 당시 기준에 따라 연 4회 한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은 계약잔액(보험금에서 차감되고 해당 인출한도는 주보험 해지환급금의 50% 이하입니다. 중도인출 후 추가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의 일부가 계약관리비용으로 차감되므로 반드시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약 가입시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할 때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상품인 '삼성생명실손의료비보장보험 30(갱신형, 무제한)'도 있는지를 꼭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 자산진단 캠페인] 상담문의: 1588-3114

삼성생명 SAMSUNG

## U대회 이모저모

### FISU 집행위원 28명·패밀리 500명 속속 입국

광주 U대회를 주관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 28명도 오는 29일까지 광주 들어온다.

25일 광주 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에릭 샤프트 FISU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대회 준비를 위해 입국했으며, 플루드 루이 갈리앙 FISU 회장(사진)은 27일 광주에 도착한다. FISU 집행위원회가 30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집행위원 28명이 모두 입국할 예정이다.

집행위원과 명예위원, 차기 개최도시 위원 등 FISU 패밀리 500여명도 대회 개막전까지 입국해 각 위원회별로 대회 준비·운영에 나서게 된다.

이 밖에 내외신 기자들은 메인미디어센터가 문을 여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광주를 찾은 전방 기자 1300여명 중 외신기자는 300여명에 이른다. /박진표기자 lucky@

### 강진군 청자 머그컵 3600개 제작 기념품 제공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전남 강진 청자가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를 빛낸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광주 U대회에 강진청자 머그컵이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지난달 12일 강진청자협동조합과 광주관광협회는 청자기념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원을 들여 청자머그컵 3600개를 제작했다.

군은 강진청자를 알리고 자 물레성형과 용기제형관을 운영, 광주를 찾은 전세계 선수들에게 청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도 높일 방침이다. 강진에는 국보급 고려청자의 70%가 생산된 곳으로 고려시대 188기의 가마터가 있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